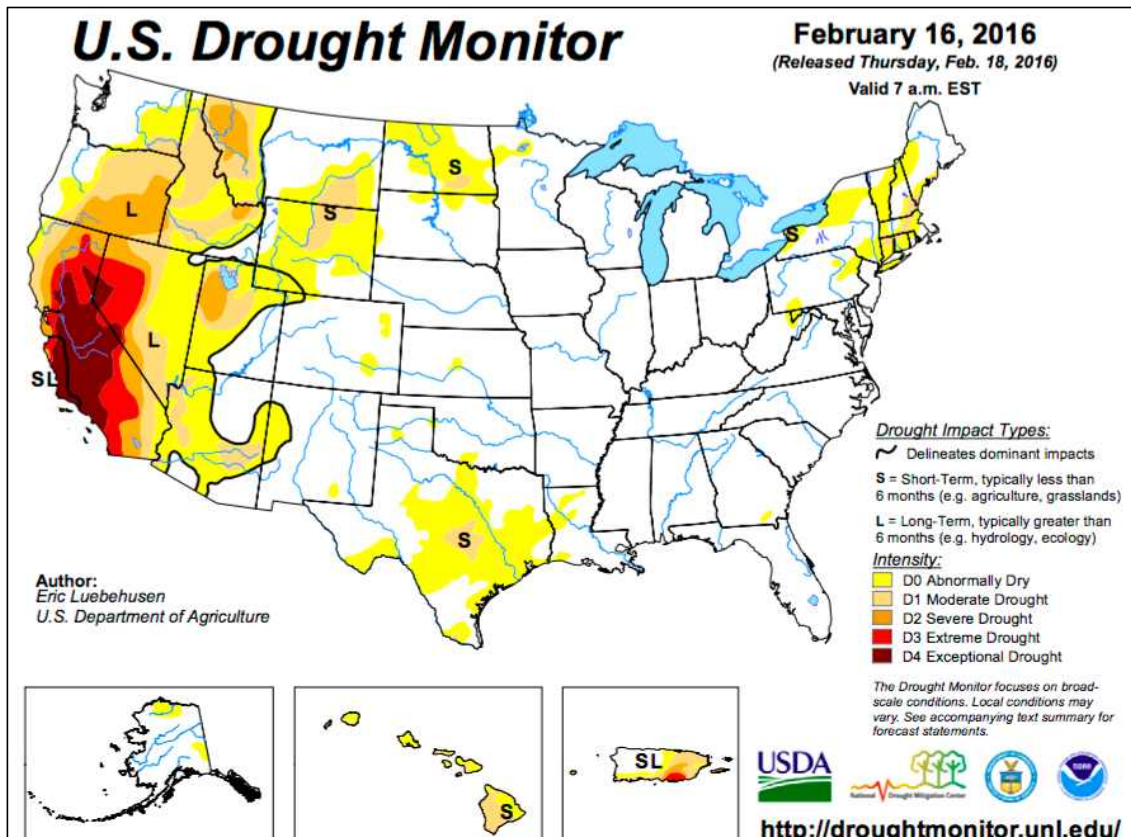




2월 2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8)

□ 미국 기후 현황(2/14~2/20)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시적으로 열대성 저기압이 기승을 부리면서 눈이 내렸다. 북서부 일대에서도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북서부, 북동부, 남동부, 남서부 등 네 개의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중부지역 일대에서도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따뜻한 기온 탓에 대부분의 눈이 녹아내렸다. 대평원 일대에서는 지난 한 주간 평균기온이 10~20°F 이상 높았고, 오클라호마 서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90°F 이상 오르기도 했다. 따뜻하고 건조한 대기 탓에 일부 지역에서는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시시피강 동부 일대에서도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밖의 동부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선선한 날씨를 유지하고 있다. 대서양 연안 중부 지역에서는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5°F 정도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주 초반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했다. 대서양 연안의 남동부 지역에서는 1인치 내외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내륙지역에서는 2인치 내외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 농업 현황 요약(2/15~2/21)

중부 일대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 대평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12°F 이상 높았다. 해안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강수량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워싱턴주 일대와 테네시, 메인주 등에서는 평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 세계 기후 현황(2/14~2/20)

■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기 불안정에 따른 갑작스런 기상 변화가 이어졌고, 남동부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다. 대서양에서 유입된 수증기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렸으며, 겨울밀 재배지역 일대에서는 5~20mm 내외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스페인 전역과 이탈리아, 발칸반도 서부 지역에서는 10~7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스페인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평년에 비해 1~4°C 정도 기온이 낮은 날이 많았고, 이로 인해 겨울밀과 보리의 생육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체코와 헝가리 등에서는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 겨울작물의 성장 상황이 매우 좋다. 남동부 유럽에서의 지난 한 주간 평균기온은 평년에 비해 10°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까지 올랐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후 한두 차례의 기온 하락으로 인한 동해 피해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구소련(서부): 전반적으로 이례적인 고온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눈이 녹아내렸고 휴면기에 접어들었던 작물들도 성장을 재개했다.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5~3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현재 토양의 수분 함량은 좋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북부와 러시아 중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10°C 정도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겨울 추위를 막아주고 있던 눈이 다 녹아내렸다. 보다 남부의 우크라이나 남동부, 러시아 남부에서도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C 이상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이는 평균적인 4월 기온과 비슷한 수준이다). Krasnodar Krai 일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이례적으로 기온이 높은 날이 계속되고 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작물의 생육상황이 좋은 편이지만, 이후 한두 차례 추위가 찾아올 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작물의 동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 일대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들 지역의 면화 등의 생육 상황이 좋아서 생산량 전망이 매우 밝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이들 지역과 달리 대체적으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평년에 비해서 1~2°C 정도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후반까지 오르기도 했다.

■ 아르헨티나: 남부 곡창지역 일대에서는 비가 내려 이들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던 가뭄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주었다. 중부의 옥수수 재배지역인 Gauteng과 인근 지역 및 해안지역에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Limpopo 북부와 서부 일대에서는 이보다는 적은 양의 비가 내렸고, 서부의 그밖의 지역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5°C 정도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Limpopo 북부와 서부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C 초반까지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KwaZulu-Natal과 Mpumalanga 동부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40°C 이상 오르고 있다. Northern Cap와 동부 일대에서는 10mm 내외의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 브라질: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과 가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Bahia 서부와 인근 지역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25mm 미만의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는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5°C 이상 높았으며, Tocantins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C 이상 오른 날도 많았다. 중부의 Mato Grosso, Goias, Mato Grosso do Sul 등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Parana 남부와 Rio Grande do Sul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Sao Paulo, Minas Gerais 등 사탕수수과 커피 재배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북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